

[강연원고 번역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하늘을 기대하라: 통전적 구원을 되찾기 위한 존 웨슬리의 선례

랜디 매닥스 (Duke University)

이번 강의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한 측면, 이른바 “종말론,” 또는 “마지막 일들”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도덕비판, 즉 19세기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에 의해 처음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오늘날 점점 더 타당해진 비판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포이어바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에 대한 전형적인 가정에 직접 연결하여 자신의 비판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늘에서 육체 없는 영혼들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지막* 상태를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라 가정하면서, 그의 비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구원만을 생각한다(루트비히 포이어바흐, 『기독교의 본질』, 1841).

이 강연에 나는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그의 시대와 오늘날(적어도 미국에서) 포이어바흐가 옳았다고 두려움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그들이 성경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일들을 이해하는데 성경 밖의 관점으로 너무나 변형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성경의 종말론 등을 회복하여,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하는 우리 같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천을 존 웨슬리가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종말론에 관한 확신을 요약함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이러한 확신이 대중적인 기독교적 상상에서 시간에 따라 변했는지를 간략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몇몇 전형적인 기독교 예술을 통해 보일 것입니다.

이상적인 창조에서의 장수에 대한 히브리적 소망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각 국면을 보면서 “좋았다”고 선언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선한 세상에서 경작하며 지키면서(창 2:15), 살 것을 의도했음을 분명하게 긍정하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을 더 읽어 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확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긍정이며, 거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shalom)를 위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

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구약성경에는 악한 자들이 젊어서 죽는 반면 의로운 자들이 장수할 것이며, 번영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잠 10:22, 27). 초점은 이생에 맞추어져 있으며, 기껏해야, 내세는 암시적으로 “그림자,” 또는 현재 존재에 대한 희미한 인상으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축복과 보상은 종종 현세대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반복해서 설명됩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욥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깊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지만, 또한 욥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스며있습니다. 때때로 이로 인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들의 현재 불행에 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방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현재의 부정을 제거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시며(렘 31:31-34; 겔 36:24-35), 평화와 번영이라는 의도된 상태로 창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더 심도있게 주장합니다.

에드워드 히스가 그린 “평화로운 왕국”(1833)은, 이사야 11:6-8을 기초로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Hicks slide].

여기서 우리는 양옆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사자, 뱀의 굴에 해를 받지 않고 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봅니다. 만약 이 그림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 65:18-25과 같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에서의 사회적-정치적 측면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 .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 .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로운 창조에서의 부활한 삶에 대한 목시적이며 신약성경적인 비전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비전이 있는 소망은 현세대에 머물러 있으며, 출생과 죽음의 현실을 가정합니다. 누군가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나 영생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비전은 어떻게 *과거*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은 보다 극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끝없는 생명과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로의 재창조 그 이전에 현재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약속합니다!

구약성경에서의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확증되며 기독교적 소망의 규범적인 표현이 됩니다. 신약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모든* 창조에 대한 것이라는 가정을 유지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22-23).

불멸의 (인간) 생명에 대한 또 다른 그레코-로만적 관심

부활한 인간이 거주하는 삶과 연관된 새창조에 대한 기대는 신약성경으로부터 많은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의 초기부터 인간의 사후에 대한 다른 모델, 즉 교회가 뿌리를 내린 그레코-로만 문화의 부분이 된 모델의 영향을 봅니다. 이 모델은 대중적인 형태로 인간 인격의 영적인 본질은 너무도 귀해서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인격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대신 죽음이란 그 사람의 영적인 본성이 평화로운 정원(“Elysian fields”)으로 그려진, 더 높은 영적인 상태로 자유롭게 놓이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세대의 4세기 로마 빈센티우스의 카타콤에서 이것이 어떻게 현재도 뚜렷하게 보이는지 주목하십시오. [다음 slide]

이런 소망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의 2가지 특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첫째, 죽음 바로 다음의 인간의 상태는 완전한 의식이 있으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몸에 있을 때보다도 죽음 후에 그들은 더 충만히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 더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더 분명히 볼 수 있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비전에서 소망은 거의 완전히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식물과 동물은 음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의식이 있는 중간상태: 확대되는 기독교 가설

사후에 대한 그레코-로만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 몸의 부활 *사이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모델로 점점 더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한 중간상태의 가능성이 신약성경의 몇몇 군데에서 암시를 주고 있지만, 대중적인 기독교적 상상은 우리가 죽을 때 즉시 의식이 있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가설은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라는 15세기 그림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slide]

이제 어떻게 그 초점이 마리아의 장례식과 매장이 아니라, 그녀가 순간적으로 “하늘 위”로 옮겨지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더 높은 영역에 있는 이들의 몸은 기껏해야 공기 같으며(또는 영적이며), 그들은 구름 위를 떠돕니다. 부활과 새로운 땅을 기다리면서 무덤에 남아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구약성경의 이미지는 여기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순례 - 순수한 천상적 소망으로 조율된 영성

우리가 이제까지 추적한 것처럼, 아주 먼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다른 영역에도 분명히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그것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순례”라는 암시로 두드러졌습니다.

성경에도 순례라는 암시의 흐름은 있지만, 지배적인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때에 주셨던 사랑의

선물로 평화로운 인간의 삶을 제시합니다. 고난과 악은 이 원래의 이상에 대한 타락으로 그려지며, 죽음(또는 적어도 요절이나 부정의한 자의 죽음)은 저주로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완전 창조에서의 평화롭고 풍성한 상태를, 그 가운데에 있는 인간성을 포함하여,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확실히, 성경은 또한 현재 타락한 세대에서 삶은 위협받고 있고, 대개는 짧다고 그리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복되는 전쟁과 기근을 경험하여 순례를 인생에 대한 *지배적인* 은유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방인이며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서 본향으로 향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개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창조의 현세적인 *타락*에 대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 예비적 상황에서 현세적인 *인내*를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해당하는) 지배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저주라기보다는 (하늘 위의) 보다 이상적인 상태로 영원하던 해방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사야 65:8-15의 소망보다는 전도서 7:1,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비관적인 결론에 더 끌렸습니다. 현재의 세상을 경작하며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암시가 가장 발전되고 잘 알려진 형태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1678)입니다. [slide]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이 slide에서 보이는) 순례자가 절망의 늪과 같은 세상에서 삶에 포함된 다수의 지난한 방해들을 뚫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방해물들로 인해 그는 하늘의 목표인 천상의 도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 도시에 도달하게 될 때, 그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그가 막 탈출하려고 했던 세상에서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또는 갈망)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최후의 소망에서 땅과 짐승의 상실

사실, 사후에 즉각적으로 오는 축복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회복된 땅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최후 구원사역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본성 안에 실재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인간이 전 우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만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좋았더라”고 하신 다른 존재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대중적인 기독교 경건에 대한 헌신은 한스 멤링이 그린 최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15세기 그림에서 분명합니다. [slide]

인간들만이 땅에서 일어나서 지옥이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의 목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황량한 땅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들만이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최후의 소망에서 인간 몸이 거의 상실 됨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그렇다면 인간이 전부일까요? 신약성경과 신경이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확인하는 반면, 강력한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대개의 기독교 신앙은 *순수하게 영적인* 최후의 상태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다수는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름위에 있는 천사처럼) 하늘 위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새롭게 된 물질적 창조에서 다시 몸의 존재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중간 상태에 대한 전망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최후의 상태에 대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프라 엔젤리코]

이것이 바로 포이어바흐의 비판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 또는 포괄적인 창조에 대해 궁극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왜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기후변화와 광범위한 종의 멸종에서 특별히 초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창조를 돌보는 것에 반대하고 이것만으로도 기독교를 해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반대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인간 몸과 창조 전체의 구원을 되찾자는 최근의 요청들

내가 추적한 역사가 보다 엄밀해 진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하늘 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에는 불충분한 종말론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포이어바흐와 다른 비판가들로 인해, 기독교 학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전체 창조를 위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강조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신약학자 라이트의 『소망으로 경이롭게 됨: 하늘, 부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함』(2008)과 신학자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적 종말론 되찾기』(2014)와 같은 책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책들이 기독교계를 흔들어 놓은 논의는 초기의 단계이며, 어떤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종교로부터 주제를 가져온) 혼합주의나 현대 문화에 양보하는 경우가 아닌 가 의심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적한 역사는 문화에 대한 어떤 양보나 비-기독교적인 자료와의 혼합이 일찍이 있었다는 반대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저자들이 기독교의 목소리를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나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존 웨슬리의 사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가, 전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성경적 증거를 회복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회복된 종말론을 실제로 암시하는 것을 찾는데 참여하는 것에, 강력한 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적인“신령화된”종말론에 대한 존 웨슬리의 처음 가정

존 웨슬리는 창조 전체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모델을 회복하는 것을 도운 실제적으로 중요한 선구자였습니다. 기독교 소망의 신령화된 모델은, 우리가 그 발전을 추적한 것처럼,

18세기 영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표준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것을 자신의 목회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흡수했습니다. 웨슬리의 1746년 『설교집』 첫 권의 서문에 유명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목회에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입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커다란 간극을 날아, 변하지 않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한 가지, 즉 하늘로 가는 방법, 다시 말해 어떻게 그 행복한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설교집』, 서문 5).

이 인용에서 어떻게 인간본성을 우리 영혼으로 한정하고, 또 그 소망이 어떻게 영혼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창조에서 나와 하늘 위로 돌아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이사야, 다니엘, 또는 바울이라기보다는 그레코-로만의 내세 모델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기독교 저서에서 전형적인 것이었고,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존 웨슬리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관심의 범위에 대한 존 웨슬리 인식의 성장

그러나 웨슬리가 부흥에 스스로 계속 더 몸을 담으면서, 그는 이 영적인 모델에 도전하게 되는 깊은 성경적 진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웨슬리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는 시편 145:9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물을 베푸시는데다.” 부흥에 참여하는 시기를 통하여, 웨슬리는 이 “모든”이 포함하는 것을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논쟁적이던 한 문제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변호하기 위해, 웨슬리가 시편 145:9을 처음으로 인용하였던 한 경우는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설교에서였고, 이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하신다는 개념에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화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있기에,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은혜롭게 제공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슬리가 시편 145:9을 인용한 또 다른 경우는 그의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또 다른 사람은 주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반대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웨슬리는 평생 주장했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시편 145:9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말년에 자신의 마음을 바꾼 웨슬리에게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동물의 구원/복지에 대한 존 웨슬리의 성숙한 헌신

나는 웨슬리의 1781년 “보편적 구원”이라는 설교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모델을 과감하게 다시 주장하면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물을 베푸시

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최후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모든 동물의 세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창조 되었을 때 가졌던 원기와 힘, 민첩성을 다시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저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III.3). 즉 내세에서 동물들은 이생에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닐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거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아해 한다면, 웨슬리는 인간도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주를 돌아다니며, 모든 행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탐험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가 용감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천여 년 이상의 서구 기독교에서 동물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옹호하는 첫 설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당시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모순적이라고 여겼던 생각을 변호했습니다(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입증하는 본문들을 빠르게 지나치도록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물을 베푸시는도다”는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성경에서 무시된 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다루었기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85년의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의 설교를 출판하면서, 그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는 성경이, 현재의 상태보다 극적으로 개선된 물질적 요소(물, 불 등)조차도 존재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한다고 독자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이 웨슬리의 설교에는 우리가 논쟁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후의 소망에 대한 믿음은 (포이어바흐가 생각한 것처럼) 현재적인 윤리적 함의들을 제공한다는 웨슬리의 인식이라고 나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생 찰스처럼,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찰스의 찬송시 마지막 소절로 잘 알려진)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늘을 기대하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존의 설교, “보편적 구원”의 결론에서 분명합니다. (당시 주요 프랑스 과학자 찰스 보네프로부터 그가 이 주장을 채택했다는 것을 밝히지만) 그는 미래의 동물의 삶에 대한 자신의 제안은 사변적이라고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물을 베푸시는 분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권면한다”는 소망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년의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하늘을 기대”하는 중요한 방법은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분명하게 순회 설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짐승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조심해서 탈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을 씻기고 먹이고 잠을 재웠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대회의록” Q.3). “자녀교육에 대하여”(25)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자녀들이 (뱀을 포함한!)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신들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하라는 “황금률”을 어떻게든 모든 동물에게 확장하게 하라고 부모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영원히 가치있게 여기기에,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슬리는 곰-놀리기와 닭-싸움에 반대하는 설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웨슬리의 입장이 잘 알려졌기에 동물복지에 호의적으로 설교하는 18세기말 영국의 어떤 목회자도 메소디스트라고 비판받았습니다. 1824년 런던에서 동물학대방지회가

결성되었을 때, 그들의 첫 출판물은 “보편적 구원”에 대한 웨슬리 설교를 첫 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존 웨슬리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18세기 사람이었고 당시의 가설을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1세기에 동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한다고 웨슬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웨슬리가 성경의 통전적인 구원관을 회복하는데 초기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돌보는 비전을 보여주는 의미들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 목회의 후손인 우리는 수호성자나 모델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존 웨슬리의 회복한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는, 의학치료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음식과 운동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돌보기 위한 것이 메소디스트의 부흥을 시작한 주요 이유라는 연관된 주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참고자료와 토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